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에 관한 연구 II

- 頭髮, 靴, 裝身具에 표현된 성 역할을 중심으로 -

한 명 숙 · 하 희 정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성에 따른 역할 분화는 사회적 행동의 가장 보편적인 결정적 요소이다. 모든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의무와 기대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들은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문화에 의해 결정된 성 역할은 그 사회 구성인으로서 적합한 복식 형태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제안하게 된다.

현대의 복식은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과 다르게 개성적으로 의복을 소화해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대 복식이 요구하는 다양화·개성화 시대에 頭髮, 靴, 裝身具는 기성복에 변화를 주고, 복식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연출하고 결정하는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頭髮, 靴, 裝身具에 표현된 성 역할을 중심으로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본은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남·여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62부중에서 불충분한 자료 47부를 제외한 31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극물은 頭髮, 靴, 裝身具의 세부적 측면으로서 頭髮은 스타일과 색상을 분리한 후, 스타일은 외양의 주된 특징에 따라 유형을 제시하였고, 색상은 헤어스타일에 따라 느낌도 달라지게 되므로, 스타일을 배제한 색상만을 제시하였으며, 색상의 유형은 실제 모발의 색상과 함께 염색의 대표적인 색상이라 할 수 있는 black, brown, wine, purple, green, blue, lemon, orange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靴와 裝身具의 유형은 외양의 주된 특징에 따라 도식화로 그려 제시하였다.

의미 미분 척도는 인지자가 頭髮, 靴, 裝身具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측정을 위해 5점 척도(가장 여자답다'와 '가장 남자답다'는 5점, '가장 여자답지 못하다'와 '가장 남자답지 못하다'는 1점)로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초 통계 외에 집단간의 표본 평균과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頭髮의 스타일 유형 중 short와 up style 항목에서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color 유형 중 brown, green, blue 항목에서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스타일 유형 중 short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 인지하였으나,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인지를 하였다. up style은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인지를 하였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인지를 하였다. up style이 '남자답다'에는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인지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여 대학생 모두 short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여자답다'에 긍정 인지하였고, short은 부정 인지하였다. long과 permanent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강한 긍정인지를 하였으나, '남자답다'에는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인지 하였다.

color 유형에서 brown은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인지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인지를 하였다. green과 blue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인지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부정인지를 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black이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강한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따라서 남·여 대학생 모두 머리카락이 아주 짧은 스타일을 매우 남자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머리가 길거나 퍼머넌트는 남자다운 차림새로는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의 색상으로는 남·여 대학생 모두 black은 남자답고, brown은 여자답지만, green과 blue는 여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머리 염색 색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靴 유형에서는 oxford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靴 유형 중 운동화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인지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pump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인지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loafer, sandal, boots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 인지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인지를 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동화와 oxford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인지를 하였고, '남자답다'에는 긍정인지를 하였다.

따라서 남·여 대학생 모두 운동화와 oxford를 남자다운 차림새에 적절한 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pump, loafer, sandal, boots는 여자다운 차림새에 적절한 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裝身具 유형에서는 모든 항목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裝身具 유형 중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 인지하였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안경은 '여자답다'에 남자 대학생은 부정의 인지를, 여자 대학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정도의 인지를 하였다. 선글라스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인지를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긍정의 인지도가 높았다. 넥타이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인지를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부정

의 인지를 하였다. 스카프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인지를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머플러가 '여자답다'에는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인지를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인지를 하였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넥타이는 '남자답다'와 머플러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인지를 하였다.

따라서 남·여 대학생 모두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를 여자다운 차림새에 적절한 裝身具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넥타이는 남자다운 차림새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裝身具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